

## 마음의 여유



정 기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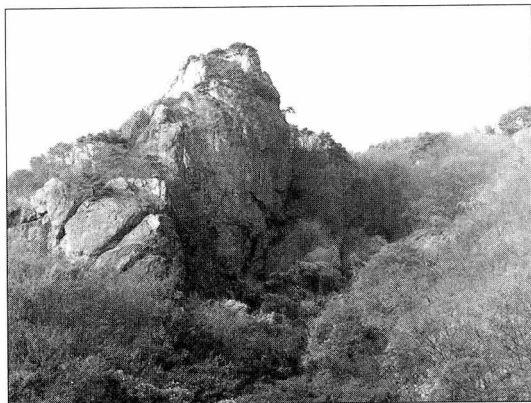
〈수필가·한국문인협회회원〉

공자님은 지천명의 나이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하였다. 불혹의 나이를 지나 지천명의 나이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해진다. 하늘의 뜻은커녕 회한만 커져간다. 알 수가 없다. 그래도 혈기가 넘쳐 흐를 때에는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아리송해졌다. 분명하고 확연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손에 잡힌다고 믿고 있었던 일까지도 이제 들여다보니 모두가 바람뿐이다. 잡히지 않는 실체에 열심히 걸어왔다고 믿었던 확신들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만다. 믿었던 신념들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와닿는 것은 공허함뿐이다. 무엇 하나 내편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의 구멍은 더욱 커진다. 뺨 뚫려버리는 허허로움에 주체할 수 없어 방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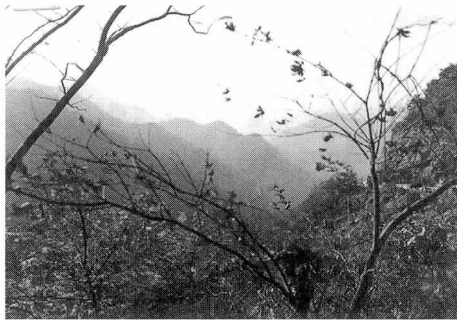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걸어 온 길은 바른 길이

있는가? 정녕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 까?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물음 속에서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30대엔 넘쳐 흐른던 정열마저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정열은 무엇이든 확실하게 정의하게 만들어 주었다. 만든 확신을 향해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었을 때엔 행복이 있었다. 거기까지 달려가면 분명 확실한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기대와 설렘으로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만큼 의혹은 적었다. 고지에 가면 분명하고도 확실한 잡아야 할 것이 있을 것이란 신념이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이젠 안다. 그곳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알기에 허탈해질 수 밖에 없다. 공허로움에 천길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사람을 자꾸만 왜소하게 만든다.

둘러보면 답답한 일뿐이다. 무엇 하나 기분 좋을 일이 없다.



내장산 가을



내장산 가을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뿐이다. IMF한파로 얼어붙은 경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 사는 정을 모두 몰아내버렸다. 옛날에는 옷깃을 스치면 인연이라 하였다. 그러나 옷깃을 스치면 인상부터 쓰게 만들어버렸다. 이웃에 정을 독독히 하

기는커녕 이웃에 관심을 가질 여유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이웃에 정을 돈독히 하기는커녕 이웃에 관심을 가질 여유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집안 일마저도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 자식들이 속삭히는 일은 그렇다치고라도 각종 물가가 치솟아 가정 경제의 어려움은 사람을 더욱 더 좀생원으로 만들어버린다. 남 보이기에 웅졸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내 자신을 싫어지게 만든다.

날마다 같은 일의 반복으로 생기를 잃어버린지 오래이다. 어제와 오늘 같고 오늘 같은 내일을 향해 기대할 것이 없다. 다람쥐가 체바퀴 도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맞추어진 부품처럼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여야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쌓이는 한숨을 주체할 수 없다. 기계화되어버린 생체 리듬을 매일 매일 확인하면서, 가지게 되는 절망감은 의욕을 뭉텅이로 무너뜨린다.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날마다 손으로 만지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궁극적인 의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보이는 세월의 빠름에 주체할 수 없는 회한에 흔들림이 많아진다. 눈으로 보이는 세월의 무심함을 절감하면서 가지게 되는 감정은 하나이다.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절망감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이럴 때마다 찾는 곳이 있다. 바로 내장산 국립공원이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어머니의 가슴같다. 고향은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고향쪽 하늘만 바라보아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더군다나 고향 가까이에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내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이다. 고창은 자랑스러움이 넘쳐흐르는 고창이다. 선운사며 모양성 그리고 석정 온천등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소들이다. 또한 근래에는 지석묘군이 세계적인 유적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내 고향 고창과 인접해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또다른 감흥을 일으켜 준다.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어줄뿐만 아니라 자부심마저 가지게 한다. 내장산 국립 공원은 청춘의 꿈을 키워준 곳이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내장사의 서래봉은 정복의 대상이요 꿈을 키우는 곳이었다. 젊음 하나로 맨발로 달려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내장사였다. 등산을 위한 장비는 너무나 가난하여 엄두도 낼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렇다고하여 젊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배낭 대신 엮어 만든 가방으로 대신하였고 코펠 대신 양재기를 가지고서도 야영을 시도하였던 시절이었다. 그 때의 낭만은 지금도 가슴에 그대로 살아 있다.

뜻이 맞는 친구 두녀석과 무조건 나선 겨울 산행이었다. 고창



내장산전경

에서 장성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서 부터는 걸었다. 좁디 좁은 논두렁 길을 넘어 산골짜기의 길까지 기쁜 마음으로 걸었다. 70년대 초의 겨울은 너무나 한산하였었다. 방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백양사를 지나 내장사에 도착하였어도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젊음을 토론하며 미래를 꿈꾸면서 낭만의 기쁨에 폭 빠져들 수 있었다. 눈썹인 서래봉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얼어붙은 폭포의 물을 만지면서 우정을 다짐 하였다. 펄펄 끓는 혈기에 겨울밤의

추위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2박 3일간의 내장사 겨울산행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하다. 하나도 바래지지 않은 채 싱싱한 그대로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 녀석들은 지금은 멀리서 사회의 중견인이 되어 있다. 그 녀석들이 보고 싶다. 그럴 때마다 내장사를 찾는다.

전주에서 내장사에 가는 길은 다양하다. 국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구이를 거쳐 쌍치가는 지방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순창으로 돌아서 장승으로 유명한 곳으로 돌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내장사를 찾는 횡수가 많아지면서 내장사 들어가는 길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내장사 국립 공원은 생활의 활력

소가 되어 주었다. 내장사 국립공원을 가까이 두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답답할 때면 내장사를 찾는다. 퇴근 후 1시간 정도면 다가설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장에 얽매어 스트레스 쌓이면 부담없이 다가설 수 있으니 고맙기만 하다. 아무런 생각없이 그리고 아주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특히 서래봉의 아름다운 정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백련암의 정취에 젖어 큰 스님의 범어에 마음을 의지하고 있노라면 욕심을 버리고 나 아닌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내장사의 진면목인 백련암은 세속의 욕심을 잊게 해주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 들 곳을 찾지 못해 답답해질 때마다 내장사를 찾는다.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어 매번 다시 찾게 된다.

내장사를 가까이 두고 살 수 있게된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아름답다. 보이는 것마다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노라면 힘이 저절로 솟아난다. 단조로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싱그러운 향에 젖어들 수 있다. 특히 서래봉 아래의 백련암의 정취는 떠올리기만 하여도 마음을 기쁘게 한다. 다정한 친구와 함께 백련암의 큰 스님을 찾아 뵈어야겠다.▲▲